

광주시, 모든 복지시설 '단일임금 호봉제' 도입

제3기 처우 개선 계획 확정...260억 투입 13개 사업 추진 검진 휴가제·건강검진비 지원 등 종사자 건강권·복지 증진

광주시가 오는 8월부터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 '단일임금 호봉제'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14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3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단일임금 보장을 위한 '전 시설 호봉제 전

환'과 복리후생을 위한 '건강검진휴가제' 도입, 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건강지킴이사업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3기 처우 개선 계획은 '건강한 삶 속 내★일이 빛나는 복지공동체' 비전과 '몸도 마음도 건강한 행복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

시설 649곳 3천900여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260억원을 투입해 ▲단일임금 보장 ▲복리후생 증진 등 2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21일 '2024년 제1회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2기 처우 개선 계획' 호봉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호봉제를 올해 추진한다.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은 추 가 검토 및 5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추

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 보장은 처우 개선과 관련해 오랫동안 중점 논의됐던 사항으로 '제3기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호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로 환경 개선에 의미가 있다. 또 종합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공개 채용을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적용 대상자를 자녀 뿐만 아니라, 노부모(70세 이상)까지 확대해 각 이들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만 사용

하던 장기근속휴가를 경력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유급휴가(5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 저연차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시설종사자 중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의무대상자에 게 격년으로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회복 지원 방안으로 마음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들도 이뤄진다.

광주시는 제3기 처우 개선 계획이 현장과 꾸준한 소통에 따른 결과물인 만큼 전담팀(TF)을 구성, 지속적인 현장 소통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 복지를 위해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종사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곧 시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현장과 소통을 통해 마련된 처우 개선 계획인 만큼 종사자들이 자 긍심을 느끼면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에 참석,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제13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성료

전국 200여개 공예 공방 등 참여 역대 최대 규모

광주시는 14일까지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지역 최대 수공예품 박람회인 '제13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를 개최했다. 첫날인 지난 12일 개막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송진희 (재)광주

디자인진흥원장, 한선주 광주공예문화산업진흥원장,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과 공방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200여개 공예 공방, 수공예 진흥기관이 참여하는 등 역

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전시 부스도 지난해보다 10개가 늘어난 280개 부스가 운영됐다. 강기정 시장은 4개 상품에 대해 광주 시 우수 공예 브랜드 '오렌즈' 인증패를 수여했다. 올해 오렌즈 선정 상품은 ▲더자기플러스의 '차곡차곡 푸딩 컵' ▲이야기(器)의 '무등절리(無等節理) 다용도 볼(Bowl)' ▲샤르메의 '샤르메 볼마커 디퓨저' ▲그림길공방의 '원앙 소리 도어벨'이다. /박선강기자

▶1면 '시의원 자리다툼'서 계속

앞서 지난 8일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됐다.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나선 신수정 의원이 전체 2표 중 찬성 1표를 받았지만 무효와 기권도 각각 4표, 3표에 달했다. 사실상 7표가 반대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의 특성 상 경선이 오히려 갈등과 잡음만 양산하고 있어서다. 제과 갈등이나 자리 다툼을 방지한다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유증이 더 커지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시의회는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

다. 게다가 경선결과를 놓고 민주당 광주시당까지 나서 경고를 날리면서 의회의 독립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1당 독점 체제에서 민주당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결국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한 당내 경선을 없애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부터 전남 섬에서 25개국 '청년 워크캠프'

신안·진도·완도·여수 등 12곳 4차례 100여명 참가 갯벌·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환경 정화 봉사 활동

세계 25개국 1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제1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가 15일부터 8월25일까지 전남 12개 섬에서 열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글로벌 아일랜드'를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에선 세계자연유산인 갯벌과 200여수세계섬박람회, 섬의 문화·인물·경관 등 특별한 자원을 홍보한다. 섬 주민이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청년봉사단체' '섬사업, '섬마을인생학교' 등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해 진행된다. 참가 청년들은 신안, 진도, 완도, 여수의 12개 섬에서 각 6박7일간 국제교류 및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신안 도초도·비금도·하의도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에서 해안 정화

활동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대통령의 생가 방문, 한국화 작가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스텝 스케치 교실이 운영된다. 진도에선 하조도·상조도·나배도에 서 19세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영국 함대 선장 바실 헐이 '세상의 극치, 지구의 극치'라고 표현한 조도군도를 벽화로 제작하고 신전해수욕장 환경보호활동을 추진한다. 완도에선 소안도를 중심으로 보길도·노화도·구도를 방문해 소안초등학교와 함께하는 글로벌스쿨을 운영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록수림이 있는 미라리해수욕장에서 전남도 섬코디네이터와 함께 정화활동과 가고 싶은 섬 알리기에 나선다. 여수 금오도와 안도에서는 200여수

세계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비렁길투어를 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며 마을 주민과 교류 시간을 갖는다. 워크캠프는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 문화와 전통을 가진 청년이 함께 생활하며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하는 100년 역사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35개국 302명의 국내외 청년이 전남 17개 섬에 방문해 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3년 워크캠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봉사단 프로그램으로 인종받았으며 신안에서의 활동은 유네스코 본부의 특별 사진전시회를 통해 전남의 갯벌과 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박영재 해양수산국장은 "지역 주민과 청년이 협력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전남신보·한국학호남진흥원, 부적정 행정

도종합감사...채무 분할상환 등 14건 적발

전남신보보증재단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의 부적정 행정 14건이 전남도 감사로 통해 적발됐다. 14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4월8~15일 전남신보보증재단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 행정 사

례를 적발했다. 관련자 1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하고 13건은 주의·개선 등을 지시했다. 감사 결과, 전남신보보증재단은 2021년 1월7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채무 분할상환 허용 기간 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약정 횟수를 정했어야 했음에도 30

곳에 대해 최소 7회에서 최대 9회까지 임의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채무 관계자 56곳에 대해 초입금 납입률을 최소 0.8%에서 최대 93%까지 임의 적용하는 등 전반적인 채무 분할상환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강좌와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위탁기관을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소관 부서에서 임의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정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멋진 바닷가 해안도로에 접한 소액투자매물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산261외4필지 13,000㎡
평당3만원 총가 1억2,800

곡성 국도변 계획관리등 과수원 70,000㎡
체리, 단감나무농장, 전시,수도,관리사있음
광주에서20분대 전원마을,공장등 최적
급매 14억7,000(조정가)

월세많은(110%)돈당이 부동산
동신대역 대지3,467㎡ 원룸건물3동,관리1동
(1층점포2칸,2층아파트형 주택150㎡주인거주)
2023,6월을수리 급처분 13억5,000
(현재 보3,000 월1,460만원 받고있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회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